

SIMPAC STORY

2012 SUMMER VOL.19

“세상은
창조되는 것이다”



SPECIAL FEATURE - GLOBAL SIMPAC

Spotlight - (주)SIMPAC, 태국에 1960만불 대규모 수주

다 함께 Talk Talk - (주)SIMPAC 해외영업팀과 (주)SIMPAC메탈로이 합금철영업팀이 만나다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 (주)SIMPAC메탈로이 합금철영업팀 서울사무소

HOT ISSUE

'SIMPAC그룹 신입사원 역량강화 과정'의 현장을 가다

'우리 지역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된 (주)SIMPAC, 기업팀방 현장

BEST PARTNERS

'최고와 최고가 만났을 때' - (주)SIMPAC과 엠에스오토텍



CONTENTS

SPECIAL FEATURE – Global SIMPAC

- 05 Spotlight - (주)SIMPAC, 태국에 1960만불 대규모 수주
- 06 다 함께 Talk Talk - (주)SIMPAC 해외영업팀과
(주)SIMPAC메탈로이 합금철영업팀이 만나다
- 10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주)SIMPAC메탈로이 합금철영업팀 서울사무소

HOT ISSUE

- 14 'SIMPAC그룹 신입사원 역량강화 과정'의 현장을 가다
- 18 2년 연속 '우리 지역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된
(주)SIMPAC, 기업팀방 현장

WITH US

- 20 (주)SIMPAC메탈 가든파티

BEST PARTNERS

- 22 '최고와 최고가 만났을 때' - (주)SIMPAC과 엠에스오토텍

우리는 SIMPAC패밀리

- 26 (주)SIMPAC메탈 정련로 D조 이상훈 조장 가족

TRIP ON

- 30 SIMPAC인의 1박 2일 - (주)SIMPAC홀딩스 전략기획실 이승훈

SIMPAC NEWS

- 34 SIMPAC소식

WHAT'S THE BEST

- 37 (주)SIMPAC이엔지

38 다른그림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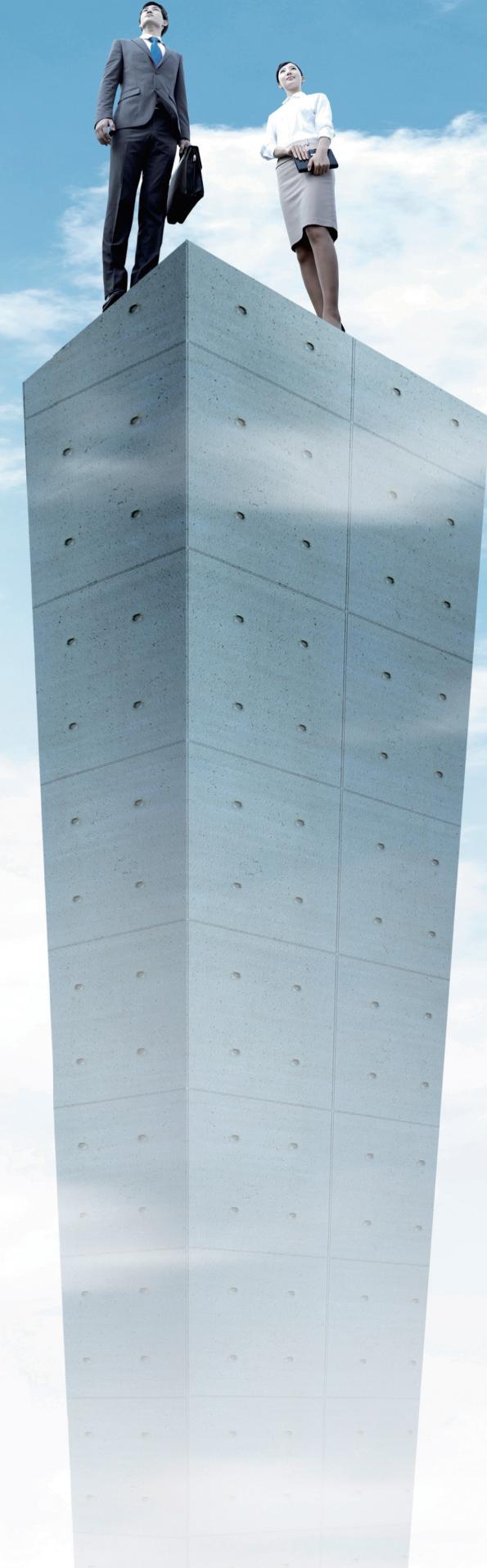
39 우리들의 게시판



TheGlobe

"세상은 창조되는 것이다."

세상은 언제나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선두에는 혁신을 이뤄내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들이 가진 남들과 다른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이미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기 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를 위해 주도적으로 정진하는 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계획과 이를 행동에 옮기는 실행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SIMPAC인들이 가져야 할
2가지 소양,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요?



SPECIAL FEATURE

Global SIMPAC - 더 큰 세상을 향하여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여, 실행에 옮겨라

01. Spotlight - (주)SIMPAC, 태국에 1960만불 대규모 수주
02. 다 함께 Talk Talk - (주)SIMPAC 해외영업팀과 (주)SIMPAC메탈로이 합금철영업팀이 만나다
03.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 (주)SIMPAC메탈로이 합금철영업팀 서울사무소



(주)SIMPAC, 태국에 1960만불 대규모 수주

타이 서밋그룹과 6개 라인 18대 프레스 공급계약 체결



(주)SIMPAC이 타이 서밋그룹(Thai Summit Group)과 1960만불 규모의 프레스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타이 서밋그룹은 태국, 일본,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23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연간 매출 8억 달러 이상을 자랑하는 태국 최대 자동차 부품 업체. 메르세데스 벤츠, 포드 등 글로벌 자동차 생산 업체에 자동차부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① 수주처 : THAI SUMMIT GROUP

② 수주규모 : USD 19,600,000

③ 공급 프레스 : 6개 라인, 총 18대

DL4P-1200 LINE, DL4P-1000 LINE, DL4P-800 LINE, DL2P-500 LINE, DE4P-600 PROGRESSIVE LINE, DE2P-500 LINE

④ 특징 : 대형 FULL AUTOMATION LINE

Interview with SIMPAC

(주)SIMPAC 해외영업팀 김대현 대리

Q. 이번 계약이 갖는 의의는 무엇입니까?

우리 회사가 동성공업개발, 쌍용정공을 거쳐 (주)SIMPAC으로 사명을 바꾼지 십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현저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불황 및 계속되었던 국내 자동차 업체의 투자 감소로 인하여 수주가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 확대가 절실히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계약 체결은 해외 메이저 업체에서의 수주를 발판으로 기타 업체들과의 신규 거래로 이어질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주)SIMPAC 프레스에 대한 평은 어떠합니까?

(주)SIMPAC은 창업이라프레스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해 온 국내 프레스 업계 1위의 기업입니다. 프레스 선진국인 독일이나 일본보다는 품질이 뛰어지는 것이 사실이나 (주)SIMPAC은 문제 발생시 24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완벽한 A/S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자중 대표이사 이하 전 임직원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품질향상에 대한 노력의 결과로 제품 자체에 대해서도 여타 기계들보다 만족스럽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Q.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어려운 점이나

보람 있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해외 영업 활동을 하면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겠지만, 장시간 비행에 따른 피로와 시차에 의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태국 등을 오가야 했기에 특히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규모와 금액이 큰 프로젝트이기에 실수 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하였습니다. 그 외의 어려운 점이라면 경쟁 업체의 정보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SIMPAC인 모두가 협심하여 이루어낸 성과이기에 이번 건이 갖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태국을 동남아시아 거점으로 활용하여 인도네시아를 비롯, 베트남 등 신흥 개발국에 판로를 확대하여 태국에 편중되어 있는 시장을 넓혀 OEM 업체에도 직접 납품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Global SIMPAC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그룹,
SIMPAC의 위상을
확인하라!

(주)SIMPAC 해외영업팀과
(주)SIMPAC메탈로이 합금철영업팀이 만나다

지난 7월 10일, (주)SIMPAC 사옥에서는 (주)SIMPAC의 해외영업팀 권우근 대리와 유정임 사원, (주)SIMPAC메탈로이 합금철영업팀의 정진호 대리가 만나 세계로 뻗어나가는 SIMPAC그룹의 위상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SIMPAC이라는 이름으로 만난 세 사람은 같은 목표를 향해 뛰고 있는 동지를 만난 듯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SIMPAC 해외영업팀
권우근 대리



(주)SIMPAC 해외영업팀
유정임 사원



(주)SIMPAC메탈로이
합금철영업팀 정진호 대리





주SIMPAC메탈의 당진공장에서 새롭게 생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일본을 메인으로 해서 유럽이나 미국 쪽의 수출을 늘릴 계획입니다.

“전 세계에서 주SIMPAC의 프레스에 대한 문의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SIMPAC메탈로이는 당진공장 가동을 계기로 일본을 주 무대로 해서 유럽과 미국 수출을 늘릴 것입니다.”

SIMPAC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고객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유 지금까지 3~4개국의 바이어들을 만났는데요. 처음 방문하는 고객들은 주SIMPAC이 작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사옥을 보고, 공장까지 모두 돌아보고 나면 주SIMPAC이 무척 큰 회사라며 놀라곤 하죠. 고객들이 우리를 믿고 프레스를 구입하겠다고 결정할 때마다 저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권 최진식 회장님께서 국제망간협회에서 부회장직을 맡고 계시잖아요. 국제적인 단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회사의 신뢰도도 높아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SIMPAC이라는 브랜드의 포지션에 큰 장점이 있다고 봐요. 주SIMPAC도 어서 국제프레스협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는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정 납품을 하고 난 뒤에 고객관리 측면에서 고객사를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직접 대면했을 때, 주SIMPAC메탈로이가 납품한 제품의 퀄리티가 무척 좋고, 덕분에 생산 효율이 높아졌다고 얘기할 때면 뿌듯함을 느낍니다.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여름이건 겨울이건 굉장히 고온에서 힘들게 작업하는 걸 잘 알고 있기에 특히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언제나 세계 시장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다른 문화차이에서 오는 고객의 요구사항들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죠.”

업무를 진행할 때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정 늘 실시간으로 시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현재 우리가 생산하는 Si-Mn과 Fe-Mn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지, 수출하는 시점에서 가격 포지셔닝을 어떻게 해야 원활한 판매가 이루어질지 항상 고민해야 하죠. 트렌드를 파악하는 건 기본이고, 시장 상황에 뒤쳐지지 않고 우리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민감하게 반응 해야 해요.

권 해외의 전혀 다른 문화권이랑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나라의 문화적인 특성에 저희가 맞춰야 하는 부분이 생겨요. 예를 들면 계약할 때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나중에 무상으로 추가를 해달라는 고객사들도 있거든요. 당연한 듯이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면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안 되는 시향을 요구할

때에도 고객사를 잘 설득해 저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유 해외를 상대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시차에 대처하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고객사는 아침 10시에 회의를 하자고 하는데, 그 시간은 한국에서 새벽 4시거든요. 또,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시차 때문에 피드백이 바로 오지 않아서 고객사의 대답을 듣기 위해 아근하게 되는 경우도 찾고요. 중동의 경우에는 일하는 날짜가 달라서 주말에 쉬고 있을 때 전화가 걸려오기도 한답니다.

SIMPAC그룹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각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유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국내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해요. 과거에는 국내 프레스 제조분야의 부동의 1위였지만 현재는 매출액의 절반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새로운 시장에서 프레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외 시장 개척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하고, 불안함을 느끼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IMPAC그룹은 대기업과 달리 신속하게 의사 결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고객사에 응대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 강점을 살려 일을 한다면 다양한 면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권 해외 시장에서의 판로를 찾아야 하는 만큼 해외영업팀 모두 어깨가 무겁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내년은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들 하지만 ‘매년 어려워도 SIMPAC이면 괜찮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SIMPAC과 주SIMPAC메탈로이는 SIMPAC그룹에서 프레스 기계 사업과 합금철사업을 일임하고 있는 두 개의 큰 축이다. 각각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고수하는 일등기업이 되기 위해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뛰고 있는 중이다. 해외 시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갈 글로벌 브랜드 SIMPAC, 그 미래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세계 시장을 향한 그들의 눈빛이 반짝인다!

(주)SIMPAC메탈로이 합금철영업팀 서울사무소

며칠 내리던 비가 잠시 멈추고 선선한 바람이 좋은 7월의 어느 날, 여의도에 위치한 SIMPAC빌딩에서 (주)SIMPAC메탈로이 서울사무소의 합금철영업팀을 만났다.

합금철영업팀은 합금철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가격으로 구매하고, 생산한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팀.

각자의 개성을 강하게 보여주면서도 서로 잘 어울리는 팀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걸출한 리더십의 팀장과 빼어난 능력의 팀원들

서울사무소에서 합금철영업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정창호 팀장은 (주)SIMPAC메탈로이에서 근 20년 동안 합금철 구매와 영업을 담당해 왔다. 가슴은 따뜻하고 머리는 냉철한 팀의 리더로서, 업무에 대한 노하우와 결단력을 두루 갖춰 팀원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15년 가까이 구매면 구매, 영업이면 영업, 모든 일을 두루 맡아 온 이육진 차장은 어떤 일이 맡겨지든 척척 해내는 재주꾼. 팀 내에서 팀장의 의견과 팀원들의 의견을 조율하며 특유의 꿈꾸함을 발휘한다.

언제나 긍정적인 성격으로 팀원에게 에너지를 불어넣는 정진호 대리는 해외 영업에서 탁월한 일 처리 능력을 보여준다.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무척 진지하지만 평소엔 유머감각이 넘치는 반전의 매력을 갖고 있다.

팀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돈을 관리하며 '안방마님'으로 불리는 지승연 대리는 화사한 웃음과 발랄한 말투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한다. 조만간 (주)SIMPAC메탈 기둔파티에서 실력을 뽐낼 날을 기다리며 점심시간마다 회의실에서 열심히 클라리넷 연습을 하는 중이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김준혁 사원은 선배들을 늘 깍듯하게 대하며 업무를 배우고 있어 칭찬을 받는다. 성실한 태도로 묵묵하게 일 하다가도 회의 시간이면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당찬 면모를 갖췄다.



회사의 매출은 우리 손에 달렸다!

합금철영업팀은 원자료 구매를 맡고 있기에 회사의 손익을 좌우할 수 있는 부서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적절한 구매 시점이 언제인지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세계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변화의 흐름을 빠르게 예측해야 한다.

2012년에는 상반기 경기가 어려웠던 것처럼 하반기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그렇지만 합금철영업팀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대매출을 올리는 역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제강사나 고로사에 원료를 공급하는 공급사로서의 임무를 다 할 계획이다.

“우리가 시장을 좌지우지 할 수는 없으나, 상황에 순응하면서도 최대한 손익을 계산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강사나 고로사들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겠지요.” 정창배 팀장이 2012년 하반기 이후 업무 방향을 설명한다.

“리포트 자료에 의존하기보다는 직접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실시간으로 현지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좀 더 시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어요. 점점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군의 역할을 잘하고 싶습니다.” 정진호 대리가 든든한 대답을 덧붙인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내는 끈끈한 팀워크

매주 월요일이면 팀원 전체가 모여 영업회의를 진행한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 각자 맡은 시장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과거의 자료나 현재의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시각이 나올 수 있으므로 가능한 서로의 의견을 스스럼없이 나눈다. 때문에 딱딱할 수 있는 회의시간이지만 무척 자유로운 분위기다.

“자신의 업무가 사업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팀장님과 팀원들이 유연성을 갖고 저를 대해주시고, 의견을 경청해 주시니 참 감사하죠.” 합금철영업팀의 신입사원이라는 자부심이 충만한 김준혁 사원의 말이다.

이 팀의 회식자리는 어떤 분위기일까? 팀원들의 말에 따르면 언제나 기다려지는, 부담 없이 즐거운 자리라고 한다. 아마도 정창배 팀장의 둥글둥글한 리더십과 이육진 차장의 마음 씀씀이가 팀원들을 하나로 이끌기 때문일 것이다. “팀장님이 논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걸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최고의 리더십이죠.” 이육진 차장이 정창배 팀장을 치켜세운다. “팀장님과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도 대화가 통해요. 다른 팀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으시다니까요.” 지승연 대리가 맞장구 친다. “팀원들이 워낙 잘 해주기 때문에 저는 그저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죠. 회사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지닌 친구들이 바로 우리 팀원들이거든요.” 정창배 팀장은 팀원들에게 공을 돌리며 겸손한 미소를 짓는다.

서로에 대한 칭찬이 아깝지 않은, (주)SIMPAC메탈로이의 합금철영업팀. 구매, 국내외 영업, 자금 관리 등 맡은 일은 제각각이지만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최고의 팀워크, 최상의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 듯하다.

* 다음 호에서는 (주)SIMPAC메탈로이 합금철영업팀 포항사무소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7월, SIMPAC그룹은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입사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신입사원 역량강화 과정'을 진행했다. 강원도 횡성군의 현대성우리조트에서 3박 4일 동안 진행된 신입사원 역량강화 과정에는 총 51명의 신입사원들이 참여했다.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고 극복하는 푸르른 열정의 시간을 만나보자.





'챌린지 어드벤처'에서 최고의 팀워크를 보이다!

"하나! 둘! 셋! 넷! 파이팅!"

기합이 단단히 들어간 신입사원들은 목이 쉬도록 구령을 외친다. 눈빛이 반짝반짝 살아있다. 신입사원 역량강화 과정의 2일차인 이날은 오전과 오후에 8시간에 걸쳐 '챌린지 어드벤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챌린지 어드벤처'는 로우코스와 하이코스로 나뉜다. 오전에 진행한 로우코스는 난이도가 높지 않지만 협동심을 발휘해야 하는 훈련이다. 예를 들면 밧줄을 잡고 점프해서 아주 좁은 공간에 모든 조원이 착지를 마쳐야 하는 코스로 조원들이 서로 돋지 않으면 해낼 수 없다. 4미터 높이의 벽을 넘는 코스는 한 사람이 밑에서 밟아주고, 먼저 올라간 사람이 위에서 끌어주어야 한다. 각자 아무리 잘해도 협동심을 발휘하지 않으면 장애물을 넘을 수 없다.

오후에는 하이코스 3곳에서 훈련을 받았다. 11미터 높이의 널빤지를 건너가서 뛰어내리는 '캣워크'와 11미터 높이의 밸판에서 점프해 3미터 앞의 빨간 공을 치는 '타겟볼', 넓은 밸판 위에 모든 팀원이 올라가 균형을 맞추는 '웨이던지' 코스다. "매년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올해의 신입사원들은 끈기가 있어요. 그리고 끈끈하게 하나로 뭉치는 조화로운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을 맡은 진행자의 귀띔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내고야 만다!

"나의 머리는 풍부한 상품지식으로, 나의 두 눈은 예리한 관찰력으로, 나의 입은 창의적인 설득력으로, 나의 기슴은 뜨거운 정열로! 나는 나와 SIMPAC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내고야 만다! 나는 위대한 창조인이다!" 둥그렇게 모여 서서 한 목소리로 외친다. 얼굴은 발그레 상기되고, 목소리는 쪄렁쩌렁하다. 손짓과 발짓을 더해 온 몸으로 나의 신념을 표현하는 중이다. 첫날 '의식고도화 훈련'을 마친 신입사원들은 이제 자랑스러운 SIMPAC인으로 거듭났다.

"글을 몸으로 표현한다는 발상 자체가 저의 고정관념을 파괴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소에 하지 않던 동작과 쓰지 않던 목소리를 내면서 나의 신념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주)SIMPAC 해외영업팀 손영준 사원의 말이다.

의식고도화 훈련을 마친 SIMPAC그룹의 신입사원들은 하루 만에 다시 태어난 듯 하다. 자신이 몸담은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이 하늘을 찌른다. 기합소리가 산을 울린다. 교관들은 하이코스를 훈련할 신입사원들에게 장비를 더욱 조이도록 한다. 11미터 높이의 기둥을 타고 오르는 사람이 '도전'을 외치면, 아래에서 로프를 잡은 동료들은 '성취'라고 받아 친다. 한 발, 한 발 내딛으며 두려움을 이겨내고, 동료들의 손에 나의 생명줄을 맡긴다. 남들이 할 때는 모르지만 막상 자신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너는 할 수 있어!', '화이팅!' 동료들의 파이팅 소리만이 귀에 남는다. 뛰어내리는 순간은 희열로 가득하다. 아래에서 응원을 하던 동료들은 손에 손을 붙잡고 터널을 만들어 준다. 뛰어내린 동료는 동료들이 만들어준 손터널 안을 뛰어간다. 서로가 잘했다며 등을 두들겨 준다. 성취감이 극대화되는 순간이다.

우리가 바로 SIMPAC의 미래다!

짧은 쉬는 시간, 서로에게 물을 챙겨주기도 하고 아픈 다리를 주물러 주기도 한다. 정겨운 풍경이다.

"저는 '챌린지 어드벤처' 프로그램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위낙 끌리코스터를 탄다거나 놀이기구를 타는 걸 좋아하거든요. 처음에 올라갈 때는 좀 무서웠지만 어느새 겁이 사라졌어요. 뛰어내리고 나니까 시원한 기분, 성취감이 들었어요." (주)SIMPAC메탈 설비물류팀의 김보람 사원의 말이다. 11미터 위의 통나무 다리를 성큼성큼 걸어가는 모습에 다들 환호를 보냈는데, 진짜 무섭지 않았나 보다.

"저희 팀은 다른 팀과 달리 여자 사원이 저 한 명뿐이에요. 제가 훈련을 잘 따라가지 못해서 팀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동료들이 더욱 격려해주고 응원해줘서 참 고마웠어요." (주)SIMPAC메탈 생산팀 이슬기 사원이 물을 마시며 시원하게 웃는다. 옆에서 남자 사원들이 또 한번 '와아~' 하며 환호를 보낸다.

가만히 서 있어도 송글송글 땀이 맺히는 더운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51명의 신입사원들은 SIMPAC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 서로를 아껴주는 동료애로 뜰뜰 뭉쳐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올해의 신입사원들, 이들이 만들 어갈 SIMPAC의 앞날이 매우 밝아 보인다. ■



생생한 현장에서의 소감 한 마디!

① (주)SIMPAC 코디네이터실 강소라

'챌린지 어드벤처'는 최고의 경험이었어요. 우리 조에서 제일 첫 번째로 도전했기 때문에 너무 무섭고 걱정이 되었어요. 나무 밸판 위에 올라섰는데 계속 흔들려서 무서웠지만 동료들이 줄을 잡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고 고마웠어요.



② (주)SIMPAC 해외영업팀 김광석

여기 오기 전에 신념을 적은 종이를 받았는데 오면서도 외우고, 도착해서도 외웠죠. 의식고도화 훈련을 받을 때 교관님이 몸을 움직이며 시범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기들과 함께 하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직접 체험한 시간이었습니다.



③ (주)SIMPAC 해외영업팀 손영준

'의식고도화 훈련'은 뭔가 어렵고 재미없을 것 같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생각을 몸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 신입사원들에게도 꼭 권하고 싶어요. SIMPAC그룹의 전통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④ (주)SIMPAC 전기제어파트 강영민

힘들게 체조를 했던 오전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누군가 실수를 하면 같이 기합을 받기 때문에 힘들고 짜증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실수했을 때 다독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조원들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동기들끼리 서로 챙겨주고 격려해 주는 느낌을 받아서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어요.



⑤ (주)SIMPAC 메탈로이 기술연구소 연구원 심성보

의식고도화 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하기 싫어서 얼굴이 찌푸려졌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저희 조원들 사이에 끈끈함이 자라나는 느낌이었어요. 한 목소리로 신념을 외치고 난 다음에는 팀워크에 눈에 띄게 좋아졌거든요. 소름 끼칠 정도로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⑥ (주)SIMPAC 메탈로이 Roll생산팀 류승덕

몸을 써서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저는 풍등을 제작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풍등의 각 면에 SIMPAC에서 이루고 싶은 꿈과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적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꿈을 공유하고, 서로 알아간다는 느낌이 참 좋았죠. 불을 점화시키고, 등을 하늘로 날리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⑦ (주)SIMPAC 메탈 생산팀 이슬기

엄청나게 커다란 풍등을 조원들과 함께 만든 시간이 참 즐거웠습니다. 6개 조의 풍등이 한 개도 실패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은 장관이었어요. 풍등에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적었는데 올해 꼭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2년 연속 '우리 지역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된 (주)SIMPAC

인천 지역 대학생들과 함께한 기업탐방의 시간



회사 인재상 및 채용 관련 정보에 뜨거운 관심

(주)SIMPAC이 선정된 '우리 지역 일하기 좋은 기업'은 지역의 우수기업을 알리고 지방대학생의 취업난과 구인난을 해결하고자 지식경제부가 마련한 '희망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주)SIMPAC은 지속적인 매출 신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용창출 부문에서 높이 평가되어 고용안정형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탐방 첫 일정으로 사옥 6층의 교육장에서 인사총무팀 김학중 대리의 진행으로, 회사 소개 및 홍보영상 시청이 있었다. 8명의 남녀 학생들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회사에 대한 정보

이론 더위가 연일 계속되던 지난 6월 26일 오후, 풋풋한 호기심과 열정을 가슴에 안은 대학생들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에 자리한 (주)SIMPAC을 찾았다. (주)SIMPAC은 지난해에 이어 '우리 지역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를 기념해 인천에 위치한 인천대와 인하대에 재학 중인 학생 8명이 '(주)SIMPAC'을 방문했다. 학생들의 호기심으로 열기 가득했던 그 현장을 함께 들여다보자.

요즘 대학생들의 가장 큰 화두는 '취업'이 아닐까. 졸업 예정자는 물론, 요즘엔 1, 2학년생들도 취업 준비에 열을 올린다고 하니 그만큼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취업 준비 중인 대학생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 있는 유망 기업을 탐방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유익한 일일 것이다.

이날 (주)SIMPAC 사옥을 찾은 학생들은 처음 만나는 회사의 모습, 특히 유례한 디자인의 건물 외관과 세련된 로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인하대학교 여지영 양은 "우리 지역에 (주)SIMPAC이라는 회사가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오늘 와서 직접 보니, 건물 외관에서부터 무척 활기 넘치는 기업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라고 말했다.

들을 귀담아 듣고 있다가 곧이어 회사 인재상 및 채용 관련 대화의 시간에 질문을 쏟아내었다. "실무 경험이 없는 저희들이 입사하기 위해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와 "(주)SIMPAC은 남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여직원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등 각자 알고 싶었던 점들을 물었다. 김학중 대리는 학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답변해 주었고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들의 궁금증이 어느 정도 풀려갈 때 즈음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던 '선배들과의 만남' 시간이 이어졌다.

"이번 탐방 통해 더 열심히, 준비된 인재가 되어야겠다" 다짐

이날 '선배들과의 만남'에는 인하대 졸업생 선배로 김준범 사원(설계팀), 인천대 졸업생 선배로 김세진 사원(생산팀), 김광섭 사원(해외영업팀)이 참석했다. 각 학교 별로 선배들과 재학생들이 둘러 앉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진로를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선배들은 자신의 경험담을 진솔하게 들려주며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었다. 이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가는 줄도 모르게 한참 동안 이야기꽃을 피웠다.

다음 일정에 따라 공장동으로 자리를 옮긴 학생들은 생산팀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 내부를 둘러보았다. 거대한 공장 현장을 처음 접한 이들은 그 규모와 시설에 감탄하며 설명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열심히 귀 기울였다. 상상만으로 그리던 생산현장의 모습을 실제로 마주하니 모든 것이 신기한 표정이었다. 시설견학을 끝으로 하루 일정을 마친 대학생 방문팀은 마지막으로 1층 로비에서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참가자들은 "인천에 이렇게 큰 규모의 회사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SIMPAC이라는 회사에 대해 몰랐던 점들을 알 수 있고 미래가 매우 밝은 회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선배님들과 직접 유익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뜻 깊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라며 한 목소리로 소감을 밝혔다. "이번 기회를 통해 더 열심히 공부하여 준비된 인재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탐방을 마친 학생들의 표정은 한결 밝은 모습이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속에서, 내일의 희망을 그리는 젊은 패기와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희망찬 미래를 향해 잔을 높이 들다!



지난 5월에 준공식을 가진 이후로 (주)SIMPAC메탈의 하루는 더욱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전 직원이 구슬땀을 흘리며 손발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더 큰 성장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주)SIMPAC메탈은 지난 6월 28일, 사무복지동 앞에서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가든파티를 열었다.

PM 17:30
최진식
회장과의 대화

가든 파티에 앞서 SIMPAC그룹 최진식 회장은 SIMPAC인들과의 좌담회 시간을 갖고 (주)SIMPAC 메탈의 현 상황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유가 필요한 법. 좌담회에 참여한 생산직 반장과 조장 및 관리직 사원들은 질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누었다.



열띤 분위기의 좌담회를
함께하는 최진식 회장과
SIMPAC인들

PM 18:30
가든파티
시작!

신체 건강한 SIMPAC인들이 배불리 저녁을 즐기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파티의 꽃인 맛있는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바베큐 기구를 설치한 조리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통 돼지와 목살, 소시지까지... 맥주 안주로 그만인 음식들이 속속들이 테이블로 옮겨져 준비되었다.



서로의 빈 잔을 채워주며
격려와 응원의 말을
나누는 사람들

PM 20:00
색소폰 연주와
노래자랑

파티의 흥을 돋우는 데에 음악만한 것이 있으랴. (주)SIMPAC메탈의 특별한 저녁을 위해 달려와 준 현대제철 색소폰 동호회는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연주곡들로 듣는 이의 귀를 즐겁게 했다. 이어진 시간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노래자랑! 마이크를 잡고 유쾌하게 솔선수범을 보여준 최진식 회장과 서련석 대표이사의 뒤를 이어 여직원들과 외부업체 직원 등, 숨겨둔 끼를 아낌없이 드러내며 웃음을 선사했다.



흥겨운 노래자락과 함께
무르익어가는
가든파티의 밤





엠에스오토텍 기술연구소, 신기술연구팀 김선웅 팀장

연일 폭포 찌는 더위에 몸과 마음이 축 처진다. 이런 폭염에도, 오늘도 전국 각지 일터에서는 많은 이들이 소중한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7월 말,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엠에스오토텍 기술연구소를 찾았다. 선행연구를 함께 하면서 (주)SIMPAC과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엠에스오토텍 기술연구소를 소개한다.



(주)SIMPAC 국내영업팀 대구영업소, 박해진 과장

자동차 차체 전문기업, 엠에스오토텍 기술연구소

프레스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선도하는 (주)SIMPAC, 그리고 자동차 차체부품에서 최고의 자체 기술을 자부하는 엠에스오토텍이 만났다. 최고와 최고의 만남이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랴.

(주)SIMPAC과 엠에스오토텍은 2005년 국내최초 4포인트 대형 서보프레스 공동개발을 시작으로, 고속유압 800톤 '핫스탬핑 프레스'를 공동개발했다. 엠에스오토텍의 자체 기술과 (주)SIMPAC의 프레스 기술이 만나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것.

이날, (주)SIMPAC 국내영업팀 대구영업소 박해진 과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엠에스오토텍 기술연구소 신기술연구팀 김선웅 팀장은 “엠에스오토텍과 (주)SIMPAC은 서보프레스를 함께 개발하면서 현재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업계가 주목하는 최신 기술 '핫스탬핑 라인' 공동 개발

(주)SIMPAC과 엠에스오토텍이 협력하는 주력 분야는 '핫스탬핑(Hot stamping)'이다. 핫스탬핑(열간 성형 기술)은 강판을 가열한 뒤 프레스를 이용해 성형과 동시에 급랭하는 기술로, 전 세계 철강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새로운 공



엠에스오토텍 기술연구소 사람들

법이다. 기존의 일반적인 프레스 공정을 거친 제품보다 3배 이상 고강도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 공법을 통해 적은 양의 소재로도 차량 안전도를 높게 구현할 수 있으며, 제조원가 절감은 물론 ‘중량 감소로 인한 연비 개선’ 등 장점이 많다. 이렇게 제작된 고강도의 핫스탬핑 제품은 차량 충돌과 전복 등 사고 발생 시 탑승자 안전과 직결되면서, 차체의 주요 부분에 적용되고 있다.

핫스탬핑 기술은 바로 미래의 차를 생산하는 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기술이다. 차량의 부품을 경량화하면 자동차의 연비가 향상된다. 또 고강도강을 담금질해 더욱 단단한 부품을 만들 수 있다. 무게는 더욱 가벼우면서 강도는 일반 강철소재 부품의 5배에 달한다.

박해진 과장은 “프레스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프레스 사업이 더욱 발전하고 커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며 “지금까지 함께 해온 것처럼 새로운 프레스 기술을 연구, 개발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고객이 필요한 것들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최고의 파트너십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SIMPAC과 엠에스오토텍이 국내를 뛰어 넘어 세계 글로벌 무대를 향해 함께 도약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기술로 더 높게, 세계로 더 넓게! 국내 자동차 차체 기술 선도

엠에스오토텍은 1982년 설립된 명신산업(주)을 모태로, 현재까지 자동차 차체부품 전문업체로 한국자동차 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오고 있다. 이 회사는 고품질, 무결점,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6시그마 품질경영 및 ISO 14001 시스템 등을 통해 세계 초일류 자동차 차체부품 업체로 거듭나고 있다. 엠에스오토텍 기술연구소는 2001년 3월에 설립됐다. 자동차 부품 분야의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독자설계 및 연구 개발 능력을 배양하면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김선웅 팀장은 “엠에스오토텍의 기업 자산은 인적자원으로, 이양섭 회장의 정도 경영 아래 꿈이 있는 일터, 희망이 있는 회사를 위해

전 임직원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또한 “무한 기술 경쟁 시대에 엠에스오토텍 기술연구소는 전 세계 자동차 부품업체를 이끌기 위해 기술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40여 명의 인력들이 꾸준히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지속적인 공동 연구 및 개발로 ‘동반 성장’하는 일류 기업으로

‘최고가 최고를 알아본다’는 말이 있다. (주)SIMPAC과 엠에스오토텍은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최고의 두 기업이 만난 것이라 표현할 수 있겠다.

“(주)SIMPAC은 프레스 전문 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기술력이 뛰어난 곳입니다. 저희 회사 역시, 자동차 차체 분야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정상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레스 분야의 최고 기업과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이 함께 발맞춰 나아가는 것입니다.” 김선웅 팀장은 “올해는 회사 창립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면서 “특히 올해 9월 브라질 공장이 완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엠에스오토텍은 몇 년 전부터 브라질 시장에 진출, 야심차게 준비한 끝에 드디어 올해 브라질에서 자동차를 양산하게 된다. 김선웅 팀장은 “(주)SIMPAC 역시, 좋은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두 회사가 함께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 개발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엠에스오토텍

초일류 기업의 초석을 다지는 기술력이 엠에스오토텍 기술연구소에서 시작되고 있다. 기술연구소는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과 공법을 탄생시킬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SIMPAC과의 공동 연구 및 개발을 통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며, 두 회사는 ‘동반 성장’하는 일류 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다. ■

비가 내려도 즐거운, 여섯 가족의 '행복한 나들이'

(주)SIMPAC메탈 정련로 D조 이상훈 조장 가족

보슬비가 내린 7월의 어느 일요일 오후.

충남 서산의 호수공원 입구에서 하얀색 패밀리 룩을 맞춰 입은 한 가족을 만났다. 흐린 날씨였는데 말끔하게 차려 입고 나들이를 나온 가족의 표정이 매우 밝았다. 이날의 주인공은 (주)SIMPAC메탈 당진공장, 정련로 D조의 이상훈 조장 가족. 딸 셋, 아들 하나, 여섯 가족이 한데 모이니 복이 저절로 굴러 올 듯하다. 바라만 봐도 흐뭇한,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가족을 만나보았다.



비가 언제 올지 예측하기 힘든 장마철이지만, 주말 나들이는 늘 설렌다. 더구나 온 가족이 함께 하면 기대는 더욱 클 터. 아빠는 회사에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엄마는 집에서, 평일에는 각자 바쁘게 지내다가 주말에야 다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주말이 기다려진다. 충남 서산의 호수공원은 비가 보슬보슬 내려서인지 사람들 없이 한적했다. 큰 호수 둘레에 산책길이 나 있고 앞쪽으로는 예쁜 카페와 상점들이 들어서 있다. 카페 창 밖으로 보이는 호수공원은 내리는

비와 어우러지며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비가 멈추길 기다리며 가족은 호수공원 앞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아이들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 생과일 주스와 핫초코, 머핀 등을 나눠 먹는다. 엄마, 아빠는 옆에서 흐뭇한 듯 바라본다. 가족은 얼마 전 까지 포항에 살다가, 가장인 이상훈 조장이 올해 당진공장으로 발령받으면서 4월에 온 가족이 당진으로 이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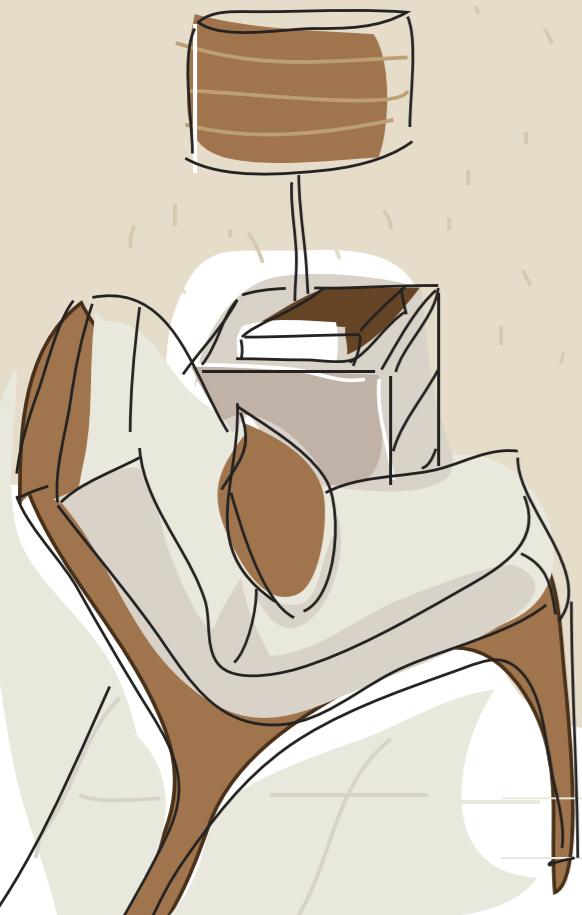


우리 여섯 식구의 희망이자 고마운 존재, SIMPAC

“가족이 많아서 다복하시겠어요?”

“식구가 많아서 좋은 점이 많아요. 애들이 여럿이다 보니, 뭐 사달라고 떼쓰고 보채는 아이가 없어요. 엄마가 차려주는 음식은 무엇이든지 잘 먹고, 서로 쟁겨주면서 저희들끼리 질서가 있고 잘 지내요. 그런 점이 감사하고 행복하죠.”

아빠 이상훈 조장은 아내 이순영 씨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아내가 아이들을 잘 키워줘서 항상 고맙죠. 식구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내는 힘들다고 내색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정을 알뜰하게 잘 꾸려가요.” 아내 이순영 씨도 남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남편은 완전히 애처가에요. 포항에서도 소문난 애처가였어요.(웃음) 가족 일이라면 항상 적극적으로 나서고 회사 일이 바쁜데 집안일을 잘 도와줘요.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라는 점이 항상 든든합니다.” 이순영 씨는 또 “남편이 근무하는 곳이 사무실 책상이 아닌 현장이다 보니, 다치지 않을까 걱정이 될 때도 있지만 소중한 일터인 SIMPAC이 곧 우리 식구에게는 희망이자 고마운 존재”라고 했다.



여섯 가족이 함께 운동 즐기고 싶어

첫째 희주와 둘째 희원이, 셋째 승엽, 그리고 막내 유나까지 여섯 가족은 행복을 키워가고 있다. 희주는 조숙한 장녀 느낌이 난다. 회계사가 되고 싶은 꿈을 위해 늦게까지 공부하면서도 틈틈이 동생들을 돌보면서 맏딸 노릇을 한다는 얘길 들으니 더욱 의젓해 보인다. 희원이는 활가락 소녀처럼 성격이 활달하고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승엽이는 축구를 좋아하는 개구쟁이 아들이고, 유나는 막내답게 귀여움을 독차지 하고 있다.

가족은 당진으로 이사 온 후, 새 출발을 위한 마음을 담아 배드민턴처럼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아이들은 자주 못 보는 아빠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아빠에게 바라는 점을 묻자,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빠가 담배를 피지 않고, 술도 조금만 드셨으면 좋겠어요”라며 애정 어린 염려를 드러낸다. 건강을 걱정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기특한 마음이 느껴진다.

가족의 사랑 안에서 티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 서로를 아끼는 부부. 여섯 가족의 다복한 모습에서 주변으로 까지 ‘행복’이 방울방울 전파되는 듯하다. ■

LOVE LETTER

안녕하세요? 저는 SIMPAC인들이 감동할만한(?) 편지를 쓰기 위해 나선 4남매의 둘째 이희원입니다.ㅋㅋ 저희는 항상 회복하고 웃음소리 기득한 우리 가족이 있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늘 행복한 우리집을 만들기 위해 꾸리기 4남매들이 여러 가지 채워가려 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에 우리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맑은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가족의 행복 한 기운을 받아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내고 하루하루 활기차게 지내려고 합니다.

To: 사랑하는 우리 가족

우리 집 열공녀 언니 - 희주, 우리 집 미녀인 나 - 희원 ^_, 유일한 귀남이 - 승엽, 무엇이든 용서받는 예쁜 막내 - 유나. 우리들은 무엇보다 서로 응원하며 공부 열심히 해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자. 그래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도록 하자.

아빠, 요즘처럼 더운 여름날, 아빠가 일하는 곳은 날씨와 관계없이 온도가 항상 높아 힘드시죠? 그래도 우리 꾸리기 4남매가 아빠 뒤에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내세요! 우리는 아빠를 항상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빠 엄마, 우리를 예쁘게 키우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항상 힘내고 웃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자, 아자 화이팅!

구월 130일 가족을 사랑하는 둘째, 이희원 씨





볼거리 다양하고 먹거리 가득한

푸른 제주도

(주)SIMPAC홀딩스 전략기획실 이승훈

올해 여름은 유난히 빨리 찾아온 것 같다. 6월 초에 이미 여의도 빌딩 숲은 태양 빛을 받아 더운 기운을 뿜어냈으니 말이다. 더위를 피할 장소로는 가까운 여의도 공원이나 한강이 있지만 그래도 여름이면 바다, 바다 하면 여름 아닌가. 그 중에서도 맘만 먹으면 저가항공을 이용해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는 제주도! 여느 외국 휴양지 못지 않게 맑고 아름다운 바다 빛깔을 자랑하는 이 신비의 섬으로 나는 친구들 3명과 1박 2일 휴가를 떠나기로 하였다. 위낙 잘 알려진 관광지이기에 누구나 한번쯤 다녀왔을 법한 곳이지만 오히려 소소한 볼거리나 즐길거리, 먹거리를 지나치는 이들도 있을 것 같아 나의 여정을 이 자리를 빌어 소개하고자 한다.

제주여행 START!

모름지기 1박2일의 짧은 여행은 새벽같이 출발해야 알뜰하게 시간을 쓸 수 있는 법. 졸린 눈 비비며 김포공항에서 오전 5시 30분 출발인 비행기에 올라타 잠깐 눈을 붙였을까, 어느새 제주상공에 들어섰다는 안내방송에 시계를 보니 6시 30분이었다. 창 밖을 내다보니 절푸른 바다에 에워 쌓인 제주시내의 모습이 한 눈에 들어왔다. 친구들과 나의 주말을 책임질 아름다운 섬, 반갑다 제주야~! 제주공항에 도착하니 아직 이를 시간임에도 인기 관광지답게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과 관광가이드, 손님을 기다리는 렌터카들로 안과 밖이 북적였다. 벽면에 가득한 하루방 그림, 서울에서 보기 힘든 야자수들을 보며 제주도에 왔구나 싶었다.



첫째 날 섭지코지- 우도-쇠소깍

첫째 날 : 섭지코지-우도-쇠소깍

청정자연의 맑은 공기를 들어 마시며 1박2일 동안 우리의 밭이 되어줄 렌터카를 넘겨 받은 뒤 향한 첫 목적지는 바로 **섬지코지!** 제주의 상징인 성산일출봉 근처에 위치한 이곳은 공항에서 자동차로 1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이다. 시원한 바람을 맞아 도로를 달리다 보면 도착하게 되는 섬지코지는 드라마 '율인'의 촬영지로도 유명해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일본인, 중국인 등이었다. 방영된 지 10년 가까이 되는 드라마 덕에 아직도 이렇게 찾아오는 이들이 있다니 가히 한류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게다가 탁 트인 전망대에서 보이는 드넓은 바다 풍경도 섬지코지의 인기에 학 몰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한참을 풀내음, 바다내음을 즐기다 밤길을 돌려 향한 곳은 동쪽에 있는 섬 중의 섬, 우도. 이곳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산항에서 15분 간격으로 출발하는 페리를 이용해야 한다. 우도에 도착해 섬을 한 바퀴 둘러보는 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추가요금을 지불하고 페리에 차량을 실어 이동하는 법이 있다. 아니면 우도 선착장에서 스쿠터나 전동카트를 대여하거나 마을 순환버스를 타고 다닐 수도 있으니 SIMPAC의 여관부들도 선택에 따라 다른 재마를 느껴보시길 바란다.



양지에서나 불법한 에메랄드 빛 해안가가 눈에 들어오면서 친구들과 나는 저절로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손이 바빠졌다. 투명한 바닷물과 만 나는 하얀 자갈 해변은 원래 죽은 산호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해양생물인 '홍조단괴'가 퇴적되어 만들어 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아 2004년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이국적인 풍경에 진귀한 모래 지갈까지… 그 속에 풍덩 뛰어들까 했지만 우리가 찾아간 날은 날씨가 덥지 않아 철썩이는 파도에 발 만 담궜다가 나왔다. 초여름임에도 제법 몸을 담그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아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면 많은 인파가 이 해변을 찾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만한 숭어가 헤엄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으니 정말 맞는 말인 듯 했던 것이다.

짧고도 긴 첫째 날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제주도하면 빼놓을 수 없는 흑돼지 삼겹살을 축산물 직판장에서 구입해 숙소에서 바베큐 파티를 열었다. 나의 친구들과 익어기는 두툼한 삼겹살을 보고 있노라니 하루의 피로가 눈 놀두 사라지는 것 같았다



둘째 날
차귀도-
제주러브랜드

둘째 날 : 차귀도-제주러브랜드

이침 일찍 기상해 짐을 챙겨 숙소를 나온 우리들은 배낚시를 하기 위해 제주도 동쪽에 위치한 **차귀도**로 이동하였다. **포스** 넘치는 선장님의 지휘 아래,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배낚시의 재미가 쏠쏠했다. 2시간 반 동안 주치와 우력을 포함해 총 8마리의 상싱한 활어를 낚았으니 말이다. 잡은 물고기들은 선장님이 즉석에서 회를 떠줘 직접 잡은 자연산 생선회로 배불리 점심식사를 할 수 있었다.

배 낚시를 마치고 이동한 곳은 **제주러브랜드**라는 이름의 박물관이다. 이곳은 남녀의 성을 주제로 다양한 물건들을 전시해놓은 곳으로 성교육이라기 보다는 그냥 흥미위주의 성인 박물관이랄까. 아무래도 가족 여행객들보다는 친구나 연인, 부부들에게 더 재미있는 코스일 듯 싶다. 이곳을 관람하면서 사진은 많이 찍었으나 사보에 실을 수 있는 간전한 사진이 없는 관계로 안타깝지만 생략해야겠다.



제주여행 END!

어느덧 서울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다. 창 밖의 아쉬운 풍경들을 뒤로 하며 제주공항에 도착해 렌터카를 반납하였다. 섬 전체가 관광지인 제주도에서 1박2일의 여행이란 역시 짧은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올 수 있는 곳이 제주도 아닌가. 요즘에야 위나 해외여행이 일반화되어 짧은 휴가일정에도 동남아 정도는 쉽게 다녀오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시차도 없고 외국어에 대한 불편함도 없으며, 타국에 쓸 돈으로 우리나라 관광지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에 일조하는 뿐듯함도 가질 수 있다는 것! 올 여름 조금은 특별한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SIMPAC인들이 있다면 푸른섬·제주로의 여행을 권하고 싶다.



A cartoon illustration of two palm trees with brown trunks and green fronds. They are positioned on a green, rounded hillside. The background is a plain white.

팔경의 나머지를 즐기기 위해 우리가 선택한 이동수단은 스피드보트이다. 물살을 시원하게 가르며 섬을 한 바퀴 돌면서 제1경인 주간명월과 제2경인 후해석벽, 그리고 제7경의 동안경굴까지 볼 수 있는 방법. 해안도 따라 이곳의 경치를 만끽할 수도 있지만 보트를 타면 동굴 속 모습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 낮의 태양 아래에 있다가 동굴로 갈 때에 느낄 수 있던 깊고 푸른 바다의 서늘한 기운이 더위를 쫓기에도 코스였다.



아름다운 풍경들을 눈에 담고 나니 어느덧 배꼽
시계가 점심시간임을 알려왔다. 불거리 못지 않
게 맛난 먹거리도 추억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법. 한 끼 잘 먹었다는 소문이 날만한 지역 맛집
을 찾아 열심히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수

었다. 여러 식당 중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곳이 있었는
보밀칼국수라는 메뉴로 유명한 곳이었다. ‘보밀’이란 ‘고등’을
는 제주도 사투리로 우도 해녀가 직접 잡은 100% 자연산만을
로 만들어낸다고 했다. 직접 먹어보니 외양은 특별할 것이 없
나 해물 특유의 시원하고 깊은 맛이 있어 몸이 건강해지는 기
랄까. 만나게 한 그릇을 비워낼 수 있었다



이 어우롭게 풀을 뜯고 있는 조랑말들과 함께 어우러져 한 폭의 작은 그림 같았다. 어느 골목이나 담이 낮아 미당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이 곳의 살립살이들처럼 자연풍경도 참 소박하게 이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나절에 걸친 우도 나들이를 마무리하고 미리 예약해 놓던 펜션에 짐을 푼 우리들은 출출한 배를 달래기 위해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황금물벼거'를 먹으러 예이츠사작이라는 곳으로



SIMPAC NEWS

SIMPLE & COMPACT
SIMPAC STORY

(주)SIMPAC

노사발전재단과 내일희망 일터혁신 컨설팅 MOU체결



(주)SIMPAC이 노사발전재단과 내일희망 일터혁신 컨설팅 MOU를 체결하고 5월 31일 (주)SIMPAC 복지사무동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MOU는 협약을 체결한 5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 간 진행



되며, (주)SIMPAC은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워크샵 및 현황자료 분석을 통해 인적자원관리제도, 임금직무 혁신 등 신인사관리시스템 구축에 적합한 컨설팅을 제공받게 된다.

이를 통해 (주)SIMPAC은 향후 직무분석 및 인사평가/보상에 대한 관리시스템 개선 정착 등 효율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근무만족도 향상 및 경영효율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상의 제30회 상공대상 장기근속모범근로자 수상



(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 당시 김영수 위원장)

(주)SIMPAC 김영수 노조위원장이 7월 2일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상의 창립 127주년 기념식 및 제30회 상공대상 시상식 행사에서 장기근속 모범근로자로 선정되어 인천시장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조명우 인천시 행정부시장, 김정치 인천상공회의소 명예회장 등 인천지역 각계 인사 및

기업인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당사 김영수 위원장은 1991년 입사 이후 20여 년의 근무기간 동안 프레스 조립업무에서부터 현재 노동조합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현장관리 능력으로 생산안정화를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장기근속 모범근로자로 선정되었다.

임직원 위한 호프데이 개최

지난 7월 6일 (주)SIMPAC은 복지사무동 1층 로비에서 호프데이를 가졌다. 더운 여름,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자유롭게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 마련, 모두가 하나되는 시간을 갖도록 한 것이다. 시원한 생맥주가 담긴 잔을 높이 올리며 화이팅을 외치는 목소리가 사무동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피아노, 베이스, 색소폰 등으로 구성된 재즈밴드가

대중에게 잘 알려진 곡들을 연주하며 이 날의 흥을



돋우었다. 200여 명 정도가 참여한 이날 행사는 1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주)SIMPAC메탈로이

직원화합 족구대회 개최



단체경기인 족구를 통해 직원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건전한 경쟁 유도로 직장 생활의 활력을 둘우고자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직원화합 족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예산과 본선, 그리고 결승전을 거치면서 직원들은 일과 후 시간에 각각으로 모여 연습하는 등 하나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주)SIMPAC에 감사패 수여

(주)SIMPAC이 한국산업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손두익)로부터 지난 7월 20일 (주)SIMPAC 복지사무동 5층 회의실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의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이 날 (주)SIMPAC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인지역본



부 프레스인증업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프레스 제조공정 견학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주)SIMPAC 품질지원실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20여명의 공단 소속 프레스 인증업무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프레스 주요 구조부 강도계산, 사출성형기 최신국제동향 등의 이론교육 및 생산투어를 통한 현장학습을 실시하였다.



(주)SIMPAC 전지중 대표이사는 프레스 업계 선두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금번 공단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게 된 점을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상호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하였다.



'심봉사' 나눔 이야기

(주)SIMPAC메탈로이 '심봉사' 회원들에게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은 바쁜 일상을 끊어 마음을 나누는 날이다. 이날 포항시 장기면에 위치한 '나전복지마을'에 모인 이상일 사장 외 '심봉사' 회원과 그 가족들은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생활관 주위 잡초



제거와 식사준비에 힘을 보탰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십시일반 정성으로 모은 격려물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7월 초에는 사무실로 노오란 편지 한 통이 배달되어 왔다. (주)SIMPAC메탈로이 임직원이 급여에서 끝전을 모아 기부하고 있는 '무지개지역아동센터'의 한 어린이로부터 온 편지였다. 고사리 손

으로 적어내려 간 편지 한 통에서 느껴지는 진심에 모두들 나눔의 소중한 기쁨과 뿌듯함을 느끼게 된 하루였다.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눔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주)SIMPAC메탈로이 임직원들의 열굴에는 이렇게 하나 둘 흐뭇한 미소가 번져나가고 있다.

SIMPAC NEWS

경기를 마치고 이상일 사장은 “1, 2등을 나누는 것 보다,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 된 것이 중요하다.”며 직원들을 격려하였고, 앞으로도 모두가 화합 할 수 있는 장을 더 마련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철강사랑 마라톤대회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철강사랑 마라톤대회'

가 지난 5월 19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 일대에서 열렸다. 이날 한국철강협회 이사직을 겸하고 있는 이상일 사장은 출발 시총, 시상뿐만 아니라 임직원들과 함께 마라톤에도 참여하였다. '철강사랑 마라톤대회'에서 직원들은 만물이 소생하는 푸르른 봄날, 야외에서 함께 땀 흘리고 웃으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주)SIMPAC이엔지



검단사업장 조경공사로 새 단장

(주)SIMPAC 이엔지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한 달여에 걸쳐, 휴식공간 조성을 통한 직원들의 업무효율 증진을 위해 검단사업장 조경공사를 실시하였다. 바쁜 업무 속에서 잠시나마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파고리를 설치하였으며, 사무동 옆에 연못모양으로 만들어진 자연친화적 분수대는 여름의 더위를 식혀줄 것이다. 또한 새롭게 심어진 푸르른 나무들 - 회양목과 연산홍, 단풍나무 등 - 은 삭막해 보일 수 있는 검단산업단지 내에서 (주)SIMPAC이엔지의 녹색근무환경을 돋보이게 할 것이라 생각된다.



(주)SIMPAC이엔지

Q&A

우리 제품을 소개합니다



(주)SIMPAC이엔지 생산팀 정제린 대리

(주)SIMPAC이엔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은 무엇인가요?

다음과 같이 소개할 수 있습니다.

종류	내용
원재료 수급	후판 I12~I210, 극후판 T220~T400, 환봉 Ø130 ~ Ø300
구조물 가공공정	(CNC 모형절단→용접→열처리→쇼트→도색→기공) 프레스 구조물 생산
부품기공공정	타이로드, 너트, 사프트, 어저스트 스크류 등

(주)SIMPAC이엔지 만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현재 연 30,000톤 규모의 철강 구조물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원재료 수급부터 가공이 완료된 철강구조물 제조까지의 작업이 (주)SIMPAC이엔지 자체설비로 가능합니다. 또한, 자체 개발 매뉴얼로 관리되는 체계적인 공정 시스템을 통해 가공기술을 관리하고 거래구조를 단순화하였습니다.

작업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초창기에는 절단공정만 작업하였기 때문에 절단에 대한 노하우가 있었지만 2010년에 용접, 쇼트, 열처리, 도장작업 외에 현재 가공공정이 추가되어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주)SIMPAC이엔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사업장 이전 및 생산공정 확장 후 절단 및 용접품질에 대한 문제점이 적지 않았지만 자체 품질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출고 전 제품 전수 검사 및 수압, 공압의 테스트 시행) 도입으로 현재는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SIMPAC의 프레스 구조물을 100% 공급하고 있어 (주)SIMPAC이엔지의 품질이 곧 프레스 품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끊임없는 품질혁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다른그림찾기

윗쪽 사진과 다른 점이 아래쪽 사진에 네 군데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체크하여 8월 31일까지 각 사 사보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다른그림찾기 지난 호 당첨자

㈜SIMPAC	고객지원팀	신현정
㈜SIMPAC메탈로이	전기로	강평화, 윤정록, 최효찬
㈜SIMPAC메탈	전기로	김남훈

우리들의 게시판 SIMPAC인의 어머니가 쓴 공연 감상문





작지만 강하다!

종합철강유통 · 가공분야의 강자

(주)SIMPAC이엔지



2003 SIMPAC이엔지로 사명변경(SIMPAC그룹으로 편입)
2004 기계가공업 시작
2005 후판철단 공정이전(인천 서구 오류동)
2010 ISO 9001 품질인증 획득, 검단산업단지로 신축공장 및 사무동 이전
2011 제48회 무역의 날 5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원재료 수급부터 철강구조물제조까지

(주)SIMPAC이엔지는 철강구조물제조 및 철강유통 업체로서 20명의 직원이 연 6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작지만 강한 기업입니다. 인천 검단산업단지에 7,000평 규모의 공장을 준공한 아래 기존 공정인 절단, 용접, 쇼트, 열처리, 도장작업 외에 가공공정을 추가하여 연간 30,000톤 규모의 철강구조물 생산능력을 갖추었으며 원재료 수급부터 철강구조물 제조까지 모든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철강유통 · 가공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

(주)SIMPAC이엔지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최적의 소싱과 최상의 가공서비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체 매뉴얼 개발로 체계적인 가공기술을 관리하고 있으며 거래구조 단순화를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만족하는 혁신적인 경영으로 보수적인 철강 유통 · 가공분야에서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인정받고 있습니다.